



## 향후 2년간 업계 책임질 양록협회 수장 뽑는다

- 1월 27일, 제15대 임원선거 실시 -

오는 1월27일 제31차 정기총회에서 향후 2년간 본회 수장으로 활동할 제15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본회는 지난 1월12일 본회 임원선거 규정에 따라 본회 회원농가 모두에게 임원선거 공고를 개별 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실시했다. 본회는 임원선거 공고를 통해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방법, 후보자 자격 조건, 구비서류 등을 안내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1월14일부터 1월21일 까지이며 본회 회장 출마자 자격 조건으로는 “임원 선출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사슴농장을 10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원”,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2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 두가지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장 입후보자는 이력서, 대의원 추천서(총 대의원의 10%, 6명. 초과 또는 미달할 수 없음), 후보등록신청서, 소견서, 기탁금 3백만원 등을 등록 만료일인 21일까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키면 된다. 회장 입후보자의 제출 서류는 일체 반납치 않으며 기탁금은 총 대의원수의 15%(9표) 이상 득표하게 되면 돌려받는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된 입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소견서를 전체 대의원에게 공지하게 되며 입후보자는 등

록 만료후 득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본회 임원 선거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이며 금번 임원선거에서는 지회 대의원 49명과 직할 대의원 7명, 총 56명의 대의원단 투표에 의해 15대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대의원이 선출할 임원은 회장 1인과 감사 2인이며 부회장 및 이사진은 선출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은 본회 정관에 따라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제15대 임원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본회는 지난 1월18일 본회 사무실에서 이번 선거를 이끌어갈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거관리위원은 본회 강성구, 류용선 고문을 비롯해 김계창, 김종호, 흥종환씨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선도, 금번 선거를 양록인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양록**